

‘읽기 교육과정 개발과 읽기 평가’에 대한 토론문

윤 희 원*

1. 토론에 앞서

오늘날 우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육계 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교과 교육의 발전이 현안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과 교육의 분야 가운데에서도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는 교육의 과정을 생각할 때, 핵심적인 연구 분야라 하겠다. 교과 교육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 수업은 바로 교수 학습 그 자체이며, 평가는 교육의 전체적인 과정의 환류를 통하여 교육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과 평가, 그것도 종래의 일반적인고 막연한 평가가 아니라 ‘읽기’ 영역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영역을 다루고자 하는 이삼형의 연구는 시의 적절한 연구라 하겠다.

2. 문제 제기와 논지 요약

이삼형은 서론에서 “Calfee & Hiebert(1991)가 제안한 평가 기준에 따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라 고등학교 국어 및 독서 과목에 제시된 읽기 평가를 살펴보고, 평가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고 밝히고, ‘평가의 주된 목적이 교육과정의 개선에 있다’고 전제하였다.

본론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평가 목적과 관련된 문제점이 ‘읽기 평가의 목적이 성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과 교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읽기 교육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일반적 능력 평가와 성취도 평가 그리고 진단 평가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평가 결과가 교육의 목표 내용 및 교재에 송환되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Calfee & Hiebert(1991)가 제안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는, 정보의 수집에서 평가 방법의 분류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고, 정보의 해석과 활용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은 이에 관한 관심이 없으나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말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본고의 진술도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을 촉구하면서 글을 맺었다.

3. 문제점과 논점 제시

이삼형의 논문에는, 확인해야 할 개념 및 내용과 논의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반박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았다. 토론의 성격을 감안하여 이들을 일일이 논의하기 보다는 문제점과 논점을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질문 형식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개념의 문제 (개념 규정 · 확인 필요)

- (1) 이 논문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가? (교육과정이 ‘국가적인 문서’와 ‘교수 · 학습 과정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현상’의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음.)
- (2) 이 논문에서 읽기 평가의 목적과 주체와 대상은 무엇인가?

- (3) 학업 성취도 평가는 성취도 평가와 같은 개념이며 일반적 능력평가 및 진단평가와 배치되는 개념인가?
- (4) 교수학습의 개선이라는 개념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교재의 문제를 제외하고 성립할 수 있는가?

- 기본 전제의 문제 (정당화 혹은 합의 필요)

- (1) 평가의 주된 목적은 교육과정의 개선에 있는가?
- (2) Calfee & Hiebert(1991)가 제안한 평가 기준은 그 자체로서 타당한가?
- (3) Calfee & Hiebert(1991)가 제안한 평가 기준을 이 논문에 채용할 수 있는가?

- 논지 전개 문제 (논리와 일관성 필요)

- (1) 교육과정 평가과 교수학습 평가는 어떤 관계인가?
(무엇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 (2)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 개선은 어떤 관계인가?
(무엇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 (3) Calfee & Hiebert(1991)가 제안한 평가 기준에 따른 논의에서 평가의 주체와 목적과 대상은 읽기 평가와 관련된 것인가,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된 것인가?

-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 (1) 이 논문은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읽기 평가를 구상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어(과)교육, 그 가운데에서도 읽기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에서 읽기 평가 부분의 내용과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가?
(전자라면 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의 주체와 목표 혹은 기준에 대한 전제나 논의없이 특정한 영역의 평가를 논할 수 있는가? ②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와 평가 결과 활용의 내용 및 방법은 무엇인가? ③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가 '읽기' 수준의 각론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혹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인가? 후자라면, 읽기 교육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되고 제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2) '고등학교'의 '국어과목과 독서과목의 읽기'를 다루겠다고 한 이 논문에서 어느 정도의 '추상적 수준'을 인정할 것인가?

4. 결론에 대신하여

국어과 교육은 학교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의 일환이므로 국어과 교육 평가도 학교 교육 평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 존재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국어과 교육 평가는 학교, 지역 사회,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 목표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에 대한 정책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가 알아보아 교육의 방향과 실천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교육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교육 평가는 일체의 교육 목표, 내용, 방법, 자료, 평가, 교사, 학생 등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국어과에서도 학생의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판단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평가의 내용과 방법의 개발과 선정은 물론 평가 결과의 제시 및 기록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평가 결과 제시 방법을 기록 및 보관 중심에서 진단 및 활용 중심으로, 총점과 평균 중심의 기록에서 개인의 특성 중심의 기록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의 국어과 교육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체제와 내용, 평가 방법 및 형식,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의 깊이있는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어교육 평가의 본질적 개선 방안은 학교 교육의 틀이라할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이 개편되더라도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를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